

■광주 스마트모바일 앱개발센터 개관 6개월

# 앱 창작터서 '잡스' 꿈 익어간다

'한국의 스티브잡스'가 되려는 광주·전남지역 앱(APP)개발자들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광주시는 KT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2월 지역 모바일(Mobile) 앱 개발자를 지원·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광주스마트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이하 앱 센터)가 개관 6개월을 맞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문화전담구역) 내 무등빌딩 13층에 위치한 앱 센터에는 300여 평의 공간에 개발과 토론, 세미나와 교육, 앱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칸막이로 분리된 1인석과, 별도의 사무실 형태로 4~5인씩 공동작업 할 수 있는 프로젝트실이 구비돼 있으며 세미나와 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휴게실 등 앱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앱 센터를 방문한 개발자는 현장에서 맥북(Macbook)과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을 임대해서 앱 개발작업과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또한, 3G 및 Wi-Fi 네트워크 환경과 앱 센터의 앱지키(관리자)를 통해 성공한 사업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앱 관련 사업화 지원과 창업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인 개발자 또는 3~4인으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앱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입주업체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업체는 1년 동안 사무실 공간과 테스트장비 등 센터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현재 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는 7개 팀 25명이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예비창업자들이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App)은 모두 5건이며 개발 중에 있는 앱(App) 또한 10여 건에 이른다.

전라동화 '햇님달님' 앱 게임으로 앱 스토어 유료 콘텐츠를 등록해서 매출까지 올리고 있는 JOYR(대표 박세정)은 지금 막 매출이 발생하고

JOYR, 앱게임 '햇님달님' 유료콘텐츠 등록

CEnA '홀더몬' 개발...등록 앱 5건 등 성과

있어서 수입은 미미하지만 문화가 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각오로 똘똘 앱 개발 업체다. 차기작은 '토끼와 거북이'로,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앱을 위해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강대학 출신 10년 지기 동창생 4명이 똘똘 CEnA(대표 변성욱)는 '홀더몬'이라는 앱을 개발,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등에서 총 다운로드가 10만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CEnA는 최근 이용자 급속히 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할 수 있는 게임 앱을 만들 계획이다.

또 저렴하고 효과 높은 광고 앱을 만들어서 지역의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

겠다는 각오로 창업한 마니아로고는 '종교책교한', 'GFN영어방송' 등 독특한 앱을 개발해서 안드로이드마켓에 배포하고 있다.

이 밖에 뉴모빌리스(대표 이인숙)의 '노블오블 증권'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해 핸드폰을 찾아주는 '진돗개' 앱을 개발한 이리듬스튜디오(대표 홍기종) 등도 더욱 편리한 스마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앱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광주지역 3개 권역에 문화산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가 개관 6개월을 맞아 5건의 앱(App)을 등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8일 예비창업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내고장 6월은 청매실 수확의 계절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보해매실농원에서 여름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청매실 수확이 한창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매실 농원인 보해매실농원의 매실은 다른 지역 매실보다 신맛과 향이 진하고 과육이 단단해 인기가 높다. <보해양조 제공>



박지현의 **살림 레슨**



### ■아카시아 꽃튀김

속이 속속 자라 한잠자 킴을 키웠다. 씩씩하지만 이제 여러 맛은 없다. 두부 위에 올려 먹던 것, 그리고 복사꽃과 영두나무며 모든 과일나무들까지 완전히 꽃을 거둔지 오래. 꽃겨야 열매 맺으니 삼삼할 일도 아니지만 펜스레 초록만 남는 것에 서운해 한다. 아 봄날이 끝나는 것이다.

봄 지나니 일을 내 젊음이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안타까워하기를 반복하다 드디어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작년엔 꽃술을 담았다. 그리고 거창하게 '봄을 가두었다' 즐거워했다.

그렇게 시작한 올해의 프로젝트.

꽃 요리. 입 안 가득 꽃 향 채우면 가는 봄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계으름피우다 머위 꽃 튀김은 이미 물 건너갔고 길가의 아카시아에 눈이 머문다. 다행히 꽃 몇 송이 무사하다. 반갑고도 고맙다.

한 송이 딱 떼내어 먹어본다. 달콤하며 향긋하다. 지천이어서 몇 송이 따낸다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는 쉬운 재료다. 하지만 향이 맛은 무척이나 그윽해 감동적이다.

아카시아 꽃 튀김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송이채 판 꽃은 소금물에 잠깐 담근다. 삶고이며 꽃 사이에 이물질은 빼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반죽을 만드는데 박력분 밀가루나 찹쌀가루에 소금 약간(이마저 귀찮으면 튀김가루로 대체) 그리고 얼음물이나 시원한 맥주를 넣고 주르르 흐를 정도로

질게 섞어준다. 주의할 점은 반죽을 많이 찌지 않아야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진다.

물에서 건져낸 꽃은 체안에 받쳐 어느 정도 물기를 빼고 콩가루를(고소한 맛이 난다. 없으면 밀가루로) 살살 뿌린 다음 만들어 둔 반죽에 살짝 담가 튀겨내는데 이때 피를 얇게 물어야 모양도 맛도 좋다. 예전 부엌에서 풍퉁거리며 음식을 만들다 '내가 왜 이리 고사나'하며 짜증을 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내 부엌

에서의 동동 거림은 그때와 또 다르다.

아카시아 꽃 몇 송이 들어왔을 뿐인데 준비하

### 송이채 따 소금물에 담궈 이물질 제거

### 밀가루+맥주 반죽 많이 안 저어야 바삭

▲TIP=연한 속이며 가지 끝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새순은 모두 튀김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껏있순, 고춧잎순, 방아잎이며 속갓도 향과 맛이 뛰어나다. 그 외에 시장에서 구입한 각종 나물 재료로 만드는 나물 튀김. 흔한 양파튀김까지 결집하면 웰빙 술안주로 손색이 없다.

## 은행 대출 까다로워진다

### 금감원 대출경쟁 제동...수익성 위주 전환

상반기 영업 대전을 치른 은행들이 하반기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당부에 따라 대출 등 외형 경쟁을 자제하는 대신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영업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하반기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항목 가운데 여·수신과 펀드 등 외형 성장 관련 항목의 비중을 줄이기로 해 서민층에 대한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수석부행장과 전략담당 부행장 등을 불러 하반기 KPI 기준 마련 때 외형 성장과 관련된 항목을 손질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은행의 영업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과당경쟁 여지가 있었으며, 일부 은행의 영업점으로부터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하반기 KPI 조정 시기에 맞춰 은행들에 외형 관련 KPI 항목을 손보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과 수신, 펀드, 방카슈랑스, 카드, 퇴직연금 등 외형 성장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권 최초로 총수신 200조원을 돌파한 국민은행은 최근 실무자업반(TF)을 구성해 KPI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120점과 80점인 대출과 수신 KPI 배점을 각각 10점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카드 부문 배점 축소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주택연금 5월 241가구 가입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신규가입 건수가 24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1% 늘었다고 8일 밝혔다. 보증금규모는 3588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1091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다. 하루 평균 가입 건수도 작년 1~5월 6.5건에서 올해 1~5월 10.8건으로 66% 늘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부부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연합뉴스

www.oknwood.com  
日本産 히노끼(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 탁월한 피톤치드 효과
- 아토피 치료 효과
- 비염·천식 치료 효과
- 폐적한 삼림욕 효과
-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
- 해충 방지 효과
-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 면역기능 증대·자연치유 효과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말)  
친환경 흡유제,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요보드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이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염, 필름합판, 문막, 문걸

판매품목  
· 정농·5단서랍장·수납공간·불박이장·죽목기·독서대·책상Set(의자·책꽂이)  
· 침대·살롱·편백건강매(편백씨앗+결명자씨앗)·편백나무베개·편백가습기 수액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설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 · 2223 fax.062)651-5141

·협력사| 우단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 호남총판 | KCC서고보드총판 | 라피즈 서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원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공장직영/원벽한시공/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칼라강판지붕개량 061)335-8842, 010-4024-4005